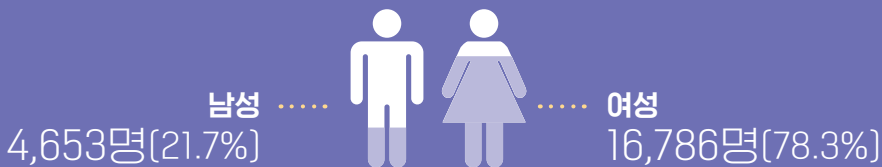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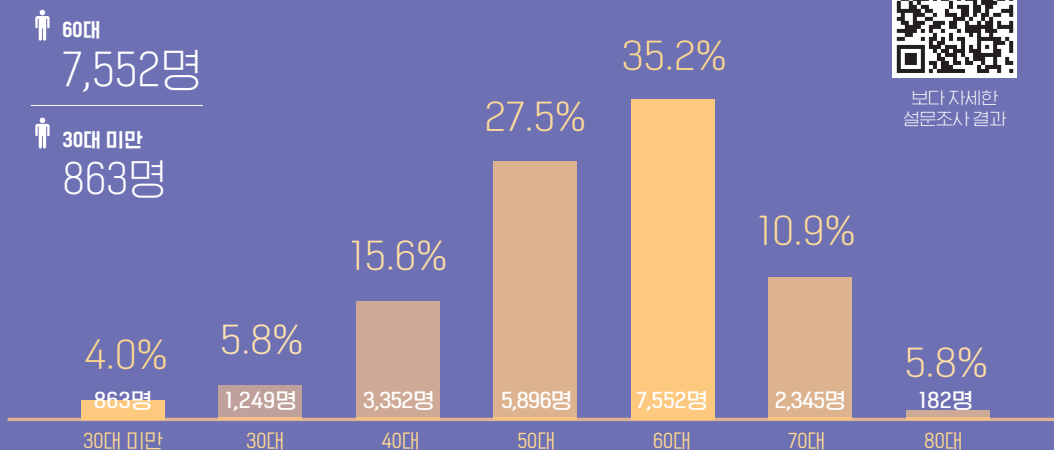
# 코로나19와 신앙생활

7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열흘 동안 교구 사목국에서는 '코로나19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교구 신자들을 위한 사목 대안을 마련하고자 신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21,439명



이번 설문조사는 Google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된 온라인 설문이었음에도 총 응답자 21,439명으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설문은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신자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사목적 필요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16,786명(78.3%)으로 4,653명(21.7%)이 참여한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60대 신자들이 7,552명(35.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30대 미만의 신자들이 863명(4%)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 '코로나 신앙생활'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대별 분포도 •

## 설문결과 ①

## 코로나19로 인한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복수응답)

55.4% 미사와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것

45.1% 신앙생활 전체가 위축될 것만 같은 걱정

31.9% 신심 단체 및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고립감

10.7%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나 불필요하다는 느낌

### 기타 의견

미사 참석이나 신앙교육,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교육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위축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상황에서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미사가 귀찮게 느껴지거나 또 불편하며, 참석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당 사제와 수도자, 사목위원들이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체계적인 방역이나 사목적 대처 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

